

2024년 춘계연수 소감문

대구토요모임 가족 대현양

안녕하십니까? 45년간 도박을 하다가 중독이 된 남편이 협심자인 대구토요모임 가족 대현양입니다.

먼저 한국GA와 갠아년 창립40주년과 봄연수를 자축하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직접 만든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대현이선생의 도박문제가 심각할 때, 저 혼자 부산에 배달을 갔다가 근처에 있는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과 고통스러웠던 제 마음을 담은 영상입니다.

<Play- 영상>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현이선생은 어릴 때부터 내기를 좋아했었고, 성인이 되면서 오락 차원의 도박은 재정적 능력이 커지면서 점차 횡수와 금액이 증가하였고, 결국은 이선생이 도박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기도박꾼에 걸려들어 함께 가게를 경영하며 이루어 놓았던 것, 마지막 부동산인 3층 상가건물과 막대한 대출은 은밀하면서도 서서히 깊은 도박의 늪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금전으로도 살 수 없는 더 큰 피해는 도박에 빠져 버린 가정의 부재와 행태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입니다. 국립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큰아들은 이선생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 “아빠처럼 도박할까요?”라고 반박하며 집을 나가 학업도 중단하였고, 둘째 아들은 불안정한 가정 상황에도 곳곳이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나 결국은 진로를 바꾸게 되는 등의 가슴 아픈 가정문제를 낳았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수없이 반복된 도박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부부 싸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선생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부들부들 떨며 가스총을 들고 도박장을 찾아간 일, 편지를 써서 달래도 보고, 욕도 해보았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제가 부수기도 하고, 도박장에 있는 이선생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저를 죽이기 위해 한걸음 달려온 일, 이미 도박중독에 빠져 버린 이선생은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도 오직 도박을 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도박행위를 막는 아내와 자식은 제거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가족병이 깊어지면서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는 증가하였고, 중독자인 이선생을 조정, 비난, 집착, 의존하게 되는 공동의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선생의 도박을 멈추게 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다 놓아 버리고

싶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성인이 된 세 아이들에게 아빠 도박문제를 오픈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2015년 1월, 1336으로 전화를 걸어 대구센터 문을 두드리게 되면서 처음으로 저희 가정의 도박문제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을 미친 듯이 도박에 몰입하다가 급기야, 2015년 8월 15일, 16일 양일간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도박장에서 불나방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불태우고 45년간 해왔던 도박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 단도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GA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유로 co.kr 대구금요모임에 3년 정도를 다니다가, 고인이 되신 상동백선생님께서 곳곳이 홀로 모임을 지키고 계셨던 현재 다니고 있는 or.kr대구토요모임으로 옮겨서 매주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8년 7개월째 기적적으로 도박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년 7개월 동안 위에서 언급한 저의 심각한 가족병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도박 1년 정도 되었을 때 대현이선생을 도박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닌 남편으로 보게 됩니다. 도박중독과 협심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껴 도박문제 예방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고, 현재 이선생과 함께 예방강사로 활동하면서 중독자와 가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조모임 생활을 하면서 협심자와의 공동의존에서 벗어나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4년 동안 저는 이선생의 도박문제와는 별개로 사회복지와 평생교육, 상담 심리를 전공하였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는 자연을 벗 삼아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내외적인 근력을 키워 나고 있습니다. 2년 전 4월, 봄꽃이 만발하던 계절, 40대 엄마가 8살, 9살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남편이 도박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지요? 밀린 집세 때문에 두 아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 나갈 것에 대한 절망감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도박문제로 어린 자녀들이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인 아내의 상태가 건강했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단도박에 초점을 두면서, 자조모임은 기본이고, 초. 중. 고. 대학교, 복지 기관, 교도소, 지역 아파트 등

도박문제 예방과 단도박과 관련된 곳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곳이 분명하므로, 저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적으로 이선생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박중독자의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가족과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먼 거리를 다녀와도 신기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이 co모임에서 or모임으로 옮긴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에 도박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도박이라는 능구렁이가 꼬리를 틀고 있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요, 8년 7개월동안의 능구렁이가 사라진 빈 공간에는 기쁘고 밝은 소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단도박 2년 차에 둘째가 세종공무원이 되었고, 3년 차에는 집 나간 큰아들과 소통이 시작되었고, 4년차에는 고명딸이 경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7년 차에는 2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소박한 1박2일의 행복 여행도 다녀왔고요, 작년 8년 차에는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며느리와 사위를 보는 겹경사 또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GA와 갬아년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의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현재도 하루하루 넘어가야 할 산이 많습디다만,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자조모임에 묵묵히 꾸준히 참석하면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유연한 사고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상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주말부부가 되었습니다. 모임이 있는 토요일만 대현이선생이 대구로 나오고 시골에서 나 홀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농사일에 파김치가 되어 있는 이선생에게 “산으로 도피했다, 사서 고생한다”라고 말했었는데요, 며칠 전 산에서 호스를 잡고 긴 시간 끊임없이 작물 하나하나에 물을 주고 있는 대현이선생을 보면서 도박 욕구를 잠재우고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현이선생의 단도박을 위해 자조모임을 찾았을 때, “OOO 아버지, OOO 남편, 죽을 때 까지 도박하더라”가 아니라 “OOO, 비록 도박으로 전 재산은 잃었지만 그 좋아하던 도박을 멈추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봐봐~ 추운 겨울이 가고 어느덧 따스한 봄이 왔잖아.
이제는 내 인생에도 알록달록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가을이 분명히 올 거야”
저는 자조모임 생활을 통해 가족 모두와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회복되고 있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40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위하여!” 이번 연수 주제처럼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절망에서 희망을, 희망에서 또 다른 하루하루의 기적을 맛보면서 이렇게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감문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